커뮤니티를 향한 나눔지
News Letter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제 85 호> 2025 년 2 월 25 일

서류미비자들과 피난처 교회들을 위한 촛불 기도회 참가 후기

지난 2 월 25 일 뉴욕의 성공회 성요한 대성당에서 열린 '서류미비자들과 피난처 교회들을 위한 촛불 기도회'에 참가했습니다. 추방의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과 함께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인 듯한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5 백명의 다양한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도들 그리고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함께 촛불을 켜고 보다 정의롭고 인도적인 정부의 이민정책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군대까지 동원한 무자비한 대량추방 정책, 외국인 혐오, 유색인종 이민자 차별등 불의한 정책들에 대항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쟁, 가난, 폭력, 환경재해등을 피해 난민, 망명자, 이주민으로 미국에 오는 형제 자매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돌보는 피난처 교회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패트릭 맬로이 성공회 성요한 성당 주교는 환영사에서 "이 교회는 기도의 집이며 종교, 인종,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모임의 장소입니다. 힘들고 혹독한 시기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모이며 이겨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이 브레이어 종교화해 센터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희망과 용기는 함께하며 연대하는 것으로 부터 나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힐리 하버 유대교 랍비는 '용기로의 부르심'이라는 기도에서 출애급기에 나오는 선지자 모세의 선포문을 인용하여 "두려워마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성공회 맨하탄 관구장인 매튜 헤이드 주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의식주와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의무입니다. 신앙인의 의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 위반으로 함께 소송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온 난민 제이콥고 그를 돕고있는 소셜워커 마리포사 베네테즈씨는 “지금은 어느 때 보다고 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며 함께 연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아다마 바 아프리칸 커뮤니티 센터 국장은 “오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자비, 정의, 연대를 향안 우리의 헌신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다음의 공동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희망과 용기로 하나되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의 백성들 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 입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 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 입니다.”

이어서 50-60 년대 민권운동 시절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과 함께 수많은 집회, 예배, 기도회에서 불려졌던 흑인 구전 가스펠이 작은 나의 빛 (This Little Light of Mine)을 함께 불렀습니다.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를 포함한 미국내 극단적인 세력의 주장들과 ‘프로젝트 2025”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미국의 역사를 1964 년 민권법 이전의 체제로 돌리려는 것이어서 이 노래가 ‘여기에 지금’ (here and now) 주는 의미와 울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명한 흑인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가 발언하였습니다. 그는 “자유의 여신상에는 “당신의 지치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라”라고 새겨져 있는데 지금 미국은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정책과 거대한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은 골리앗과 싸우는 일처럼 두려움이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희망과 용기라는 돌맹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 촛불 기도회를 통해 이보교는 반이민정책이라는 비가 내릴 때 신분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씌워드리고 우산이 없으면 함께 비를 맞는 마음으로 한인 교회들과 손을 맞잡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